

- 주요 뉴스: 6월 FOMC, 정책금리 0.75%p 인상.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파적으로 평가
 - 미국 5월 소매매출, 전월 대비 감소. 인플레이션 영향 등이 원인
 - ECB, 역내 분절화(fragmentation) 위험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
 - 중국 인민은행,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금리를 동결. 연준의 통화긴축을 고려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6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는 평가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1.5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하락[-19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매수세 강화
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등으로 1.4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실업률 상승 전망과 경기둔화 우려 등이 배경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3%, 1.2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정책금리 인상폭의 예상치 하회 가능성 등이 반영
독일은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1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78.8원, -11.8원) 0.9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6/15일	6/14일	전일대비			6/15일	6/1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790.0	3,735.5	1.46%	국채 금리 10y	미국	3.28%	3.47%	-19bp
	유럽	413.10	407.32	1.42%		독일	1.64%	1.76%	-11bp
	중국	3,305.4	3,288.9	0.50%	CDS 5y	한국	49bp	52bp	-3bp
	일본	26,326	26,630	-1.14%		중국	80bp	85bp	-5bp
	한국	2,447.4	2,493.0	-1.83%	위험 지표	EMBI+	-	414	-
환율	달러지수	104.88	105.52	-0.61%		VIX	29.62	32.69	-9.39%
	유로화	1.0444	1.0416	0.27%		WTI유	115.31	118.93	-3.04%
	엔화	133.84	135.47	1.22%	원자재	구리	416.4	415.7	0.17%
	위안화	6.7149	6.7410	0.39%		금	1,833.8	1,808.5	1.40%
	원화	1,290.5	1,286.4	-0.3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6월 FOMC, 정책금리 0.75%p 인상.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파적으로 평가

-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1.5~1.75%(0.75%p 금리인상)로 상향했으며, 이에 대해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10명이 찬성. 이번 인상폭은 1994년 이후 최대.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
- 점도표에 따르면, 금년 말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(1.9%→3.4%). 이는 금년에 남아있는 4회의 FOMC에서 총 1.75%p 인상에 나선다는 의미. 내년(2.8%→3.8%) 전망도 상향. 한편 '24년은 3.4%로 예상했는데, 이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
- 한편 향후 성장률 전망은 낮추고 물가 및 실업률 전망은 상향. 구체적으로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은 1.7%(각각 2.8%, 2.3%에서 하향)로 제시. 근원 물가상승률은 각각 4.3%과 2.7%, 실업률은 각각 3.7%와 3.9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
- 또한 경제적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점차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. 성명서에서 2.0%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는데, 이는 강한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반영
-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며, 0.75%p 인상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. 또한 7월 FOMC에서는 0.5%p 혹은 0.75%p 인상이 가능하다고 첨언.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비둘기파적(dovish)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
- Allianz의 Charlie Ripley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진단. 또한 이번 결과는 시장의 전망에 대부분 부합하며, 이에 당분간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5월 소매매출, 전월 대비 감소. 인플레이션 영향 등이 원인

- 상무부에 따르면, 5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.3% 감소를 나타내 전월(0.7%) 및 예상치(0.2%) 하회. 소매매출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. 시장에서는 양호한 노동시장과 높은 수준의 가계저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평가

■ ECB, 역내 분절화(fragmentation) 위험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

- 높은 부채비율로 금리인상 시 자본조달 비용 급증에 직면할 수 있는 역내 취약국을 도울 것이라고 발표.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매입프로그램에서 만기가 도래한 자금을 유연하게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합의

■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,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완만한 금리인상을 의미

- 센테노 총재는 경제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금리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. 또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결정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
- 반면 아일랜드 중앙은행 맥쿨로프 총재는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0.25%p 이상의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, 이것이 반드시 0.5%p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

■ 중국 인민은행,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금리를 동결. 연준의 통화긴축을 고려

- 현행 1년 만기 MLF 금리(2.85%)를 유지하기로 결정.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. 일부에서는 금리인하를 기대했으나, 강력한 통화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연준을 고려하여 금리변경에 신중하다는 입장이 확인

■ 중국 5월 소매매출 및 산업생산, 전월비 감소세 둔화. 전반적인 부진은 지속

- 5월 소매매출과 산업생산은 각각 전년동월비 6.7% 감소, 0.7% 증가를 나타내 전월(각각 -11.1%, -2.9%) 대비 양호한 모습. 하지만 통계청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며 경기회복 역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

■ 국제에너지기구(IEA), 내년에도 원유시장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

- '23년 원유수요는 금년 대비 2% 증가(일일 1억160만배럴)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. 중국의 수요도 경제봉쇄 완화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소지. 반면 러-우 전쟁 등으로 공급부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6/1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4월 기업재고(전월비): 1.2%, 3월(2.4%), 예상치(1.2%)
-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: 67, 5월(69), 예상치(68)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ECB 긴급회의, 이전보다 강력한 위기 해결 의지를 시사 - Financial Times

(ECB uses emergency meeting to get back on the front foot)

- 역내 금융 분절화 우려가 고조되자 ECB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매입프로그램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의 유연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취합. 이는 이전의 ECB 드라기 총재 시절과 비교하여 위기 대응 모습이 상이
- 과거 드라기 총재는 위기 발생 시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 여타 주요 인사의 공조는 미흡.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은 ECB가 내부 의견을 통합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

■ 중국 경제성장률, 저점에서 탈피했으나 빠른 회복은 기대난 - WSJ

(China's Hot Growth Summer Will Probably Disappoint)

- 대도시의 봉쇄 해제와 재정부양책 재개 등은 경제에 긍정적이지만, 3/4분기 성장률의 큰 폭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. 이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 우려 등으로 주요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있기 때문
- 또한 지방정부는 사업집행을 위한 채권발행 제약에 직면하고 있어,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. 인민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 수반되지 않으면, 3/4분기 성장세는 소폭의 반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 움직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 - WSJ

(Fed Interest Hikes May End Up Having Unintended Consequences)

■ 미국 주택시장, 통화긴축 강화 시 공급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 - 블룸버그

(Housing Market Cooldown Will Only Lead to More Dysfunction)

■ 미국 행정부, 고물가 및 경기침체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 - WSJ

(The Federal Reserve and Recession Fear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